



출산연령 상승 추이와 저출산 정책

김미화 연구원

■ 우리나라는 만혼 및 출산 연기 경향으로 인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음.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30세 이상 출산율이 상승함에도 20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20대 출산 장려를 위한 일자리 · 주거 등 만혼 및 비혼 대책의 중요성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결혼이 늦어짐과 동시에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으로 인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음.

- 우리나라 35~39세 여성 출산율은 2005년 18.7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29.6명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¹⁾
 - 40~44세의 출산율도 2005년 2.4명에서 2015년 5.6명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30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4세의 출산율은 2005년 17.8명에서 2015년 12.5명, 25~29세의 출산율은 2005년 91.7명에서 2015년 63.1명으로 하락하였음.

■ OECD 국가 전반에서도 평균출산연령이 상승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출산연령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평균출산연령은 1970년 27.4세에서 2014년 30.3세로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평균출산연령은 31.5세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특히 첫째아 출산이 지연됨에 따라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초산연령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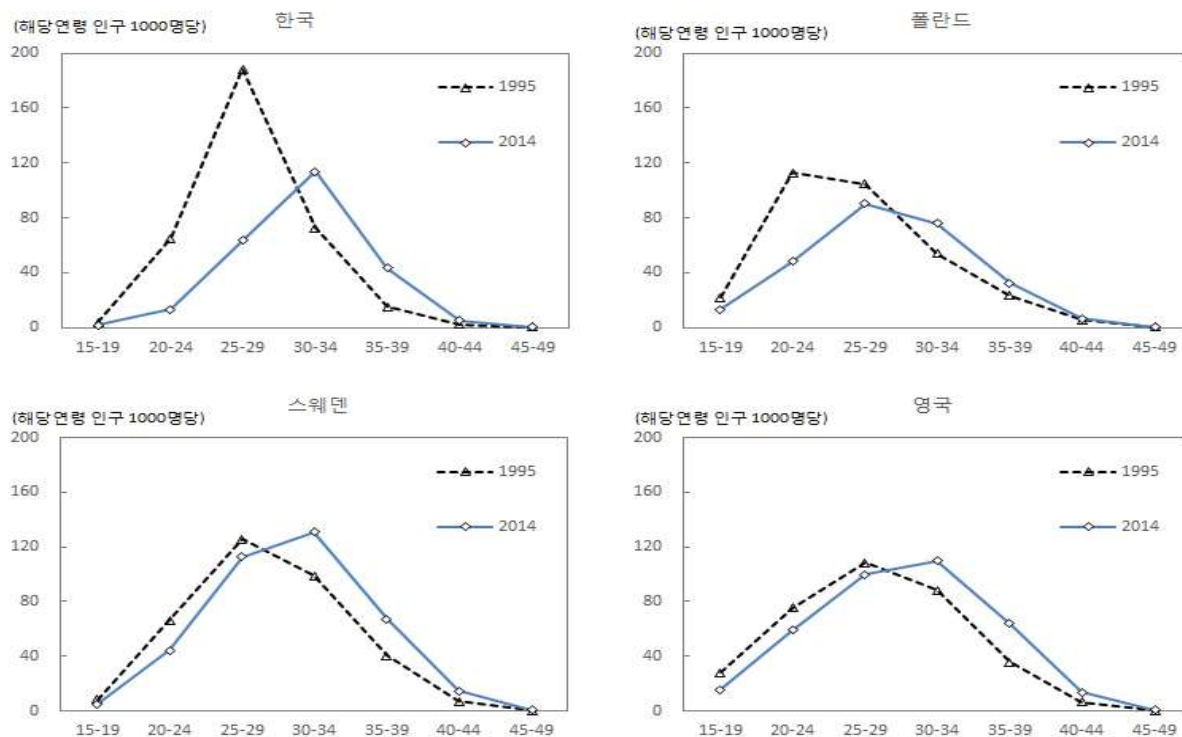
1)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24), “2015 출생 통계(확정)”.

- OECD 25개국의 초산연령은 1995년 26.2세에서 2014년 28.9세로 2.7세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초산연령은 동 기간 26.5세에서 31.0세로 4.5세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평균초산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OECD 국가 공통적인 현상이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대 출산율 감소에 비해 30세 이상 출산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30세 이상 출산율 증가보다 20대 출산율 하락이 급격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헝가리, 칠레, 폴란드, 포르투갈 등에 불과함.

〈그림 1〉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와 같은 고령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20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출산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출산율 급감은 만혼 및 비혼 심화에서 비롯함.²⁾
 -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주거 등 만혼 및 비혼 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ri**

2) 이삼식(201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